

현재진행형 일선과학자가 존중되는 사회

과 학기술 중심사회가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의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국가경쟁력에서도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지표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계속되는 일선과학자들의 과학적 쾌거는 우리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눈부신 과학기술이 지금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주목과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깊은 곳에는 과학적 사고력이 월등한 '과학기술 유전자(?)' 가 뚜렷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은 물론 유전적 소인도 잘 이어받아서인지 우리 나라의 각 연구실에는 지금도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며 우리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위해 애쓰는 '현재진행형 일선 연구자' 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나이를 떠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위해 R&D사업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과학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연구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오랜 숙성기간을 거쳐 참다운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쉽게 달콤함을 보여주지 않는다. 간혹 과학을 잘 모르는 일부사람들이 연구 성과에 대해 조금중에 빠진 이야기를 하며 일선과학자들을 폄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재진행형 일선연구자' 들은 오늘도 연구실에서 연구원들과 실험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짜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개인간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간 과학기술의 경쟁, 즉 첨단 과학기술력의 확보는 그 시대의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원천기술 개발은 국가생존 및 미래발전의 기본요소로서 기획과 논쟁보다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우선되어야만 하며 연구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회의 넉넉함과 과학자를 존중하는 시민의식 등의 조화로운 풍토를 기반으로 가속되리라 믿는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일반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한층 높아져 이제는 사회와 국가의 역량을 보다 집중시켜 '현재진행형 일선과학자' 들에게 활발한 연구의 장(場)을 만들어 주는 일에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폭넓은 이해를 더욱 결집시켜 우리 나라의 국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기술 도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혁신 우선순위에서 혹시 간과되고 있는 점들은 없는지 수시로 검토하며 운용하길 기대한다. 과학기술중심사회가 화두가 되고,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생겼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 연구하는 '현재진행형 일선과학자' 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많은 발표회, 토론회, 위원회 등의 형식을 빌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현실적 문제점과 미래 발전을 논하고는 있으나 일선연구자들보다는 행정과학자 중심의 기획과 토론이 주를 이루어 일선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은 되고 있는 것인지 등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의 현실적 위상을 위안삼아 이제까지의 과학기술을 기획했던 패러다임으로는 어느 정도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미래의 치열한 국가간의 과학기술 경쟁을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히 변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진행형 일선연구자' 들의 현실적 참여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많은 일선연구



글_ 류재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ryujc@kist.re.kr

자들이 절감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직접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합하여 어려운 벽을 타파해가며 일선 연구자들과 함께하고 일선연구자를 위한 존재가치로서의 혁신 본부라는 위상정립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행정에 관여하는 많은 과학행정가들은 선진국의 연구실과 우리 나라 일선 연구실 사이의 현실적 차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미래 차세대 기술, 또는 무슨 연구사업 이라는 구호나 학문분야를 역설하거나 인용을 하며 미래 발전 기획 등에 활용들은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 일선연구실의 애로점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발전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지금의 '행정과학자 중심'에서 앞으로는 '일선연구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야말로 과학기술혁신의 우선적 사항이며, 과학기술 혁신이건 중심사회건 그 중심축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무슨 논리나 과학행정보다도 '현재진행형 일선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학문화'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문화 진흥'이라는 커다란 흐름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은 무엇보다도 과학의 중심에서 과학을 이야기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현재진행형 일선연구자' 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들에게 과학을 이해시켜 과학의 대중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과학기술현장의 일선연구자들은 물론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학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일반국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과학문화 진흥일 것이며, 일선연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감하지 않는, 더욱이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과학문화는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 핵심 소속원들이 일선연구자들인 여러 연구소의 경우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과학자보다는 '현재진행형 일선연구자'들의 편의성과 합리성, 창조성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그 기관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소속원들은 얼마나 보람을 느끼며 연구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으로서의 행복감과 학자로서의 성취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논문발표, 학회활동 등 학문적으로도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업무우선순위로 운용할 때, '현재진행형 일선연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은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우리 나라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진행형 일선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낼 최선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하며, 일선연구자들이 중심에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만 과학기술혁신이나 과학기술중심사회가 성공적으로 우리 나라에 정착될 것이다. 일선과학자들이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껴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냉소주의로 치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과학기술 정책으로 인해 일선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이나 자긍심이 상실되는 일은 일선 연구소에서 사라져야 하며, 미래기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치열한 두뇌 경쟁만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이 되도록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일선연구자가 바라는 과학기술계의 혁신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과학은 '합리성'과 '객관성'이라는 보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적용될 과학기술 정책은 보다 더 합리성에 기초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국책사업들의 갈등해소에도 이제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우선시된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납득·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및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져야만 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중심에는 행정과학자나 비전문가보다도 연구하는 일선과학자들이 진정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태세도 한 단계 높아져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현재진행형 일선과학자'들도 국가와 사회, 나아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각 분야의 진정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한층 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보다 나은 미래원천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 진행형 일선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연구에 대한 열정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의 미래 안목,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3박자가 하나가 될 때 유사 이래 산업중흥이라는 커다란 발전을 거친 우리 나라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민족 최대의 과학기술 중흥기를 맞을 것이다.

우리 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일선현장에서 오늘도 연구하는 '현재진행형 일선과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각 분야의 현재진행형 과학자들에 대해 국가와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애정과 보다 넓은 신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㉞